



성인기증자 2명으로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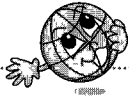
국내 의료진이 2명의 성인 기증자로부터 간 일부를 각각 떼어내 한 환자에게 동시에 이식하는 생체 부분 간이식 수술을 시도해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다.

서울중앙병원 일반외과 이승규 교수팀은 지난 3월 21일 말기 간경변으로 6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고 있던 김아무개씨(48살)에게 환자의 남동생(38살)과 딸(20살)의 간 일부를 각각 기증받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술은 기증 조건이 맞는 동생과 딸의 간 좌우 크기가 일반인과 달라 어느 한사람의 간만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도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간은 오른쪽과 왼쪽의 크기 비율이 6 대 4 정도이나 이들 가족은 7 대 3의 비율이었다. 따라서 어느 한 기증자의 오른쪽 간 부위를 떼어내면 남은 부위가 너무 작아 기증자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 반대로 왼쪽 부위만 이식했을 때는 환자의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부족한 상태였다.

환자 김씨는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간기능 수치(GOT, GPT)가 약 40정도로 거의 정상상을 되찾는 등 매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의 일부를 기증한 동생과 딸도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수명 긴 이유 밝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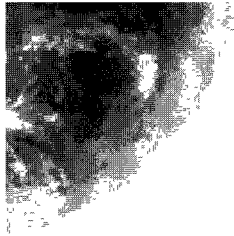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긴 이유는 남자보다 유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오덴세대학의 카레 크리스텐센 박사와 노르웨이 올레발대학병원 연구팀이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X염색체가 두개 있어서 둘 중 수명 연장에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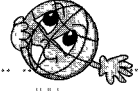
크리스텐센 박사는 여자는 모든 세포에 X염색체가 두개 있기 때문에 이중 하나는 스위치를 끄고 나머지 하나만을 사용하며, 남자는 어머니에게서 X염색체, 아버지에게서 Y염색체를 받지만 Y염색체가 우성이기 때문에 X염색체의 스위치가 꺼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은 두개의 X염색체 중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되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는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라고 크리스텐센 박사는 말했다.

지금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모유가 당뇨병, 심장병 예방에 효과



짧은 기간이라도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은 조제유를 먹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의학전문지 '아동질병'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모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상의 이익 외에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보고서는 1943~46년 사이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48~53세가 된 1995~96년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혈액검사 결과는 조제유 그룹이 모유 그룹에 비해 인슐린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모유 속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들과 각종 호르몬이 인슐린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나쁜 생활습관, 만성퇴행성 질환 일으킨다



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최신호에는 현재 미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들의 원인이 흡연, 음주, 위험한 성관계들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들은 공중보건학적인 프로그램들이 흡연, 음주, 마약, 운동부족, 영양불균형, 위험한 성관계와 같은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했는데, 학교, 직장,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모든 대상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견 동반 장애인 출입 거부땀 과태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탑승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장애인 보조견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견 표지발급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시설기준'을 마련, 이곳에서 훈련을 이수한 보조견에 대해 표지를 발급키로 했다. 또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